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15일)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태는 저금통이 전국 각지에서 돌아왔다. 고사리손으로 하루하루 동전을 모았을 유치원생부터 자식의 '건강쾌차 발원'을 적은 소원지까지. 조계종에 답지한 불자들의 원력은 소박하지만 감동적이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내빈이 발우저금통 동전을 쏟아내는 모습. 오른쪽 두 번째 · 세 번째가 50억을 기부한 연취 · 설매 보살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장자 · 풀뿌리 보시 '백만원력' 이룬다

설매 · 연취 보살, 조계종 백만원력에 50억 원 쾌척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발원
사찰명 신라시대 '분황사'로
전국 곳곳 저금통도 돌아와
현재까지 8억4000만원 모연
"한 방울 물 모여 바다 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백만원력 결집불사. 한 해의 끝을 앞둔 시점에서 현대판 장자의 보시와 전국 불자들의 풀뿌리 원력이 더해지며 사업이 탄력 받고 있다. 특히 37년 전 불연(佛緣)을 시작으로 도반의 길을 걸어온 두 장자(長者)는 부처님의 성도성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을 짓는데 50억 원을 쾌척하며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실명 대신 불명(佛名)인 설매(73) · 연취(67)라고 이름을 밝힌 기부자들은 12월 2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불사금 50억 원의 기탁 취지와 의미 등을 설명했다.

설매 보살은 "얼마 전 조계종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짓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처님의 성도지에 사찰을 짓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도반이 약정한 금액은 50억 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업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다. 설매 · 연취 보살은 37년 전 인연을 맺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원력을 회향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설매 보살이 설판을 서는 의미에서 1억 원을, 연취 보살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며 49억 원을 기부한다.

연취 보살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정리하고, 재산을 좋은 곳에 회향하려고 준비해왔는데 때마침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시작됐다"며 "이미 건물 매매는 결정됐다. 내년 2월까지 세부 절차를 마치고 현금으로 약정금액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도반의 '통 큰 기부'로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두 도반은 기부를 결정하고, 조계종에 사찰명을 '분황사'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라 선덕여왕이 분황사를 짓고, 자장율사를 궁으로 불러들여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우며 외침에 대비하고 평화를 기원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다.

세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두 도반은 불교계 NGO 지구촌공생회의 후원자로서 그간 몽골 유치원과 룸비니 초등학교, 케냐 여학생 기숙사 건립에도 동참하며 '분황유치원' '분황초등학교' 등 '분황'의 이름을 담은 불사를 이어왔다. 두 도반이 강조하는 일명 '분황 시리즈'에는 분황의 범어 '푼다리카', 하얀연꽃의 뜻이 담겨 있다.

설매 보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신라는 국력이 가장 약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통일을 이뤄낸 건 분황의 참된 의미가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통일을 해야 하고, 이는 이런 절실한 불심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조계종의 요청으로 언론 앞에 처음 나섰다는 설매 · 연취 보살은 현대 불교계서도 선지식으로 손꼽힌 통도사 경봉 스님과 송광사 구산 스님 등 여러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지금도 안거마다 선방 대중공양을 빼놓지 않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또한 두 도반은 오신채를 먹지 않고, 연취 보살은 매일 참회의 108배를 올리고 있다.

설매 보살은 "3년 전 고려시대 보조지눌 스님께서 정혜결사를 한 은해사 거조암에서 만발공양을 올리며 한국불교에 제2의 정혜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모두가 2600년 전 부처님 성도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초발심을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발우저금통 여는 날' 행사를 열고, 백년대계본부로 회수된 약 2000개의 저금통을 일괄 개봉했다.

사찰과 기부자 이름의 스티커가 붙은 발우모양의 저금통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백만원력을 이루는 개개인의 원력을 느끼게 했다. 고사리손으로 하루하루 동전을 모았을 '바라밀유치원'부터 자식의 '건강쾌차 발원'을 적은 소원지까지. 조계종에 답지한 불자들의 풀뿌리 원력은 소박하지만 감동적이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이를 인식한 듯 보시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불자들의 원력이 백만으로 모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부처님 자비광명이 만고에 더욱 빛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백년대계본부에 따르면 설매 · 연취 보살의 기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모연된 금액은 약 8억4000만원이다. 약정금은 6억5000만원이 남았다.

종단 최고 법계 대종사 12명 확정

조계종 원로회의, 특별전형 심의 만장일치 가결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에 12명의 스님이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직할교구-법인 · 자광 · 동광 스님 △월정사-청우 · 천진 · 혜거 스님 △직지사-정우 · 정광 스님 △해인사-보광 · 종성 · 선용 스님 △고운사-문인 스님이 추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할 예정이다.

법인 스님은 만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6년 해인사서 포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일본대동문화대학원 문학박사로 현재 천안 각원사 조실이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조계사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군종특별교구장,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원로회의 의원이다.

동광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도선사서 석주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도선사 주지, 제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법계위원이다.

청우 스님은 향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백운사서 향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총무원 총무국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낙가사 주지다.

천진 스님은 대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영구암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영축총림선원 유나와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월정사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강선원 주지다.

정우 스님은 태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직지사서 철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강사 주지다.

정광 스님은 대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쌍계사서 대월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선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운암 선덕이다.

보광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9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해인사승가대학 교수와 용탑선원장을 역임했다.

종성 스님은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8~9대 중앙종회의원, 해인총림선원 도감을 역임하고, 현재 해인사 홍제암 감원이다.

선용 스님은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2년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초심호계위원,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문인 스님은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2년 해인사서 영산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고운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BBS 제10대 이선재 사장 취임

12월 2일 취임법회… "디지털 미디어 환경 개선"



BBS불교방송 제10대 이선재 신임 사장〈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불교방송은 12월 2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이선재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과 불교방송 재단 사무국장 현민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이자 서울 사간동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이 참석했다.

이선재 신임사장은 취임사에서 "미디어의 미래는 디지털과 모바일에 달려 있다"며 "불교방송 콘텐츠를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은 1986년 KBS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정치외교부장, 워싱턴 특파원, 광주방송총국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KBS미디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4년이며, 지난 11월 29일 제108차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제10대 사장으로 선출됐다.

신성민 기자

